

카프로, 노사협상 다시 물거품

8월21일 협상서 입장차이 좁히지 못해 ... 분규 장기화 우려

카프로락탐(Caprolactam)을 생산하는 카프로의 노사가 직장폐쇄 이후 첫 교섭을 시도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8월22일 카프로 노사에 따르면, 울산공장 회의실에서 8월21일 밤 늦게까지 노사 협상을 벌였으나 조합원 가입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는 노조와 이를 거부하는 카프로측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협상은 8월12일 카프로측이 직장 폐쇄한 이후 처음 열린 교섭이었으며, 노사는 조만간 다시 협상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조합원 가입범위를 과장까지 확대해 주길 요구하는 노조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카프로측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그을 경우 추후 협상도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으로 보여 분규 장기화가 우려된다.

노사는 5월3일부터 10여 차례 협상을 벌여왔으나 노조의 요구안인 기본급 12.8% 인상, 직무수당 인상,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조합원 가입범위 확대 등에 대한 이견이 커 노조가 8월3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8/22>